

북구청장 문상필-조오섭 단일화 파열음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청장 당내 경선에 나선 문상필, 조오섭 예비후보 간 양자 단일화에 파열음이 일고 있다. 수사의뢰와 민·형사상 책임까지 거론되고 있어 선거 판도 전반에도 악영향이 예상된다.

문상필 예비후보는 23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단일화 여론조사에 심각한 흠결이 발견돼 무효"라고 주장했다. 단일화에 사실상 불복한 셈이다.

두 후보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J사와 S사 등 2곳에 의뢰해 지난 18일부터 사흘동안 북구청장 후보 적합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 후보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안에서 높게 나왔다. S사 여론조사에서는 둘 다 소숫점까지 일치했으나 J사 여론조사

文 “여론조사 무효” 靑 “검토 후 입장 내겠다” “단일화 유효”엔 이구동성...막판 합의 가능성

에서는 조 후보가 앞섰다. 그러나 문 후보는 “두 여론조사 결과를 단순 합산해 평균에서 0.1%라도 앞서는 후보로 단일화하기로 합의했으나 확인결과 한 곳은 905명, 또 다른 한 곳은 884명으로 조사사가 마무리돼 당초 합의한 1000명(샘플) 조사에 미달할 뿐 아니라 가중치를 적용하면 연령별 할당이 공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또 당초 사흘간 진행기로 한 여론조사가 이를 만에 마무리됐고, 샘

플을 채우지 못한 사실도 결과보고서 개봉전 통보되거나 양자 합의되지 않는 등 이해할 수도 모국할 수도 없는 일들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샘플 부족에 대해서는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질의를 통해 확인하고 여론조사 기관 2곳에 대해서 법률적 검토 후 수사의뢰와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 후보 측은 “문 후보 측이 주장한 사항들에 대한 하룻

동안 심사숙고한 뒤 주변 참모 지지자들과 논의한 뒤 24일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을 아꼈다.

당초 지난 20일 밤, 늦어도 21일 오후로 예상됐던 양자 단일화에는 차질이 빚어졌지만 여전히 두 후보 모두 “단일화 논의는 유효하다”는 입장이어서 극적 타결이나 통큰 양보 가능성은 남아 있다.

특히 두 후보 모두 광주 동신고 동문으로, 나란히 재선 시의원에다 학생운동권 출신이어서 단일화 무산시 진보 진영의 불평사운 자리 다툼이라는 비판이 쏟아질 수 있고 표심으로 이어질 경우 지지표 이탈도 우려돼 어떤 식으로든 단일화 합의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박지원 민주당평화당 의원이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박지원 “교섭단체 해결되면” 전남지사 출마 가능성 시사

“들어온다고 주말에도 설득했지만...다방면 노력도

평화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23일 교섭단체 문제만 해결되면 “전남도지사” 출마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전남지사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의원은 이날 광주 MBC라디오 ‘시선집중 광주(PD 황동현)’에 출연해 ‘주변에서 전남지사 출마하라는 권유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질문에 “지난 11년간 동안 1년 52주 중 50번 이상 ‘금급원래’를 해왔고 중앙무대에서 갖는 무게감이나 지역구 호남 발전을 위해서 확고한 예산 활동 등으로 인해 책임자가 아니냐, 좀 나와 달라는 요구가 있다”고 부인하지 않았다.

그는 “그러나 (정의당과 평화당) 교섭단체 문제와 제 아내의 건강문제가 저를 붙들고 있다”며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그 두가지 문제가 해결된다면 출마를 할 의지가 있는지는 질문에는 “두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출마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밝혔다.

박 의원은 “원래 교섭단체 20석 문제는 외부에서 한 두분에 들어오면 바로 해결되는 문제 아니냐고 묻자 “그게 들어온다고 하면서 들어오지를 않아서 지난 주말에도 상당한 설득을 하고 있었는데 결론이 나지 않는다”고 출마를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전남은 동서부 풀림 현상이 강해진 상태(민주당)가 서부에서 나와 있다고 하면 저도 서부지역이기 때문에 한번 경쟁을 할 수 있지 않느냐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 두 달여 남은 민심은 어떻게 비칠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 “민주당이 어렵지만 이 틈새시장을 노려서 더욱 좋은 후보를 찾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남규 기자



정의당 광주지역 6·13지방선거 출마자들이 23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원 후보자들도 후원회 설립이 가능하도록 법적보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의당 광주지역 지방선거 출마자들 “지방의원 출마자 후원회 허용해야” “대통령, 국회의원과 동등하게” 헌법소원 청구

정의당 광주지역 6·13지방선거 출마자들이 23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원 후보자들도 후원회 설립이 가능하도록 법적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정치자금법 개정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정의당 후보들은 “현행 정치자금법상 후원회를 뒤 선거 비용을 모금할 수 있는 사람은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자로 한정돼 있고 지방의원 후보자는 후원회 설립이 원천금지돼 있다”며 “정치자금 모금 제도가 불평등하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가 이러다보니 지방의회 후보자들은 선거자금 전액을 스

스로 마련해야 해 청년과 경제적 약자는 출마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불법 모금에도 노출돼 버릴 수 등 비리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도 대통령, 국회의원과 동등하게 후원회 설립을 허용하는 것이 뇌물과 비리로 얼룩진 지방자치체를 깨끗하게 하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임금 노동자, 영세 상인, 장애인동자, 청년, 시민운동가들도 법이 보장하는 정치자금 후원회를 통해 모금한 선거자금으로 출마와 선거운동이 가능해 정치적 다양성이 실현되는 새로운 지방자치가 구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이정선 광주교육감 예비후보 “광주교육 자존심 찾을 것”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는 23일 광주시교육청이 2017년 정령도 전국 꼴지를 기록한 데 대해 “변화와 혁신을 통해 무너진 광주교육의 자존심을 되찾겠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정령도는 다른 말로 소통자수, 혁신자수라고 할 수 있다”며 “광주시교육청이 정령도 평가에서 전국 최하위를 차지한 것은 인사, 재정, 행정, 감사, 조직문화 등의 총체적인 부실과 함께 교육감의 불통과 빈약한 정령도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예비후보는 “인사비리와 기자재 납품비리, 특정 업체 선정 의혹과 같이 문제가 되는 인사에 대해 숨방망이 처벌과 해당 사건에 대한 변명, 불투명한 정보공개 등이 반복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비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령 연수, 후보자료 등 구

시대적인 발상과 50인 협의회와 같은 비효율적 정책으로는 정령도를 향상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예비후보는 “광주교육이 정령도 전국 1위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우선 폐쇄적인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사람이 아닌 시스템에 의해 정령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광주시민교육지원청 신축에 광주교육청 정령도 제고 전담부서 구성, 시민감사관 및 시민참여형 외부평가제 실질적 운영, 정와대 7대 배제원칙에 준하는 강력하고 예측 가능한 승진 인사제도 운영, 외부인사 및 학부모가 참여하는 광주교육인사위원회 운영, 정책 제안 및 청원 강화를 실현시킬 수 있는 정책 SNS 플랫폼 도입 등을 제시했다.

고석규 전남교육감 예비후보 “현장체험으로 공약 수립”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고석규 전남도교육감 예비후보는 23일 “선거 슬로건으로 ‘사람중심의 포용교육과 미래를 여는 창의·융합교육’을 내걸고 24일부터 눈높이 현장체험에 나선다”고 밝혔다.

고 예비후보는 “급식봉사와 교통질서 캠페인, 야간 방법활동 등 다양한 현장체험을 통해 전남형 교육 모델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고 예비후보는 부인 이운미씨 등 2명의 지인과 함께 24일 여수 구봉초등학교 구내식당에서 급식봉사를 체험을 한다.

또 어린이들을 비롯해 지도교사, 영양사, 조리원 등을 면담을 하고 현장의 건의사항을 수렴해 공약에 반영할 계획이다.

고 예비후보는 “최근 전남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되면서 유전자 변형식품 등을 제외하는 조항이 추가됐다”며 “교육감이 되면 학교급식 공급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에 민전을 위해 식중독 등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장애물을 모두 걷어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성장기 어린이들의 심신 발달과 함께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며 “관계기관과 협의해 아침식사 거르지 않기 캠페인을 전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종식 목포시장 예비후보 “경선 결정 환영”

정확선거 승부 강조

6·13지방선거 김종식 더불어민주당 목포시장 예비후보가 23일 중앙당과 전남도당의 경선진행 결정에 환영의 입장을 보이며, “정확선거 승부”를 강조하고 나섰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6·13 지방선거는 참의원 선거를 위해 시민만 바라보며 자부심과 검증된 경쟁력으로 전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스마트폰에서 검색해보세요!

(주)에이치엔프레스 검색

자연석/호박돌/간판석/판재석/조경용석재 등 석제품의 모든 것

광주 전남 석제품 전문

저희 (주)에이치엔프레스는
석제품전문대량판매 및 납품전문업체로서
자연석, 호박돌, 간판석, 판재석, 조경용 등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문의전화

TEL : 062-224-5800

H·P : 010-5448-8868

“무료상담환영”